

영암군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내달 말까지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실시 27개 고물상·읍면 이장 통해 인적 사항 확보

영암군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르신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은 군의 27개 고물상과 읍·면 마을 이장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지원자를 선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영암군 각 읍·면에서는 지원 어르신을 찾아가 세부적인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영암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조사된 자

료를 토대로 1대1 면담을 거쳐 일자리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27개 고물상을 중심으로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13명을 찾았다. 그 가운데 1명에게는 일자리사업을 연결하고 다른 1명은 집중 사례관리로 살피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폐지수집 어르신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자리사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효사랑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인기

방문보건팀·건강증진팀·정신건강팀·치매안심팀·공중보건과의사 팀으로 구성

무안군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효사랑 맞춤형 순회 의료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효사랑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50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치매안심팀, 공중보건과의사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팀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건강상담,

구강검진, 신체활동 프로그램,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등 유소견자를 발견한 경우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순회 의료서비스가 많은 지역주민께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올해도 취·창업활동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 지원 생애 한 번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영광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취·창업활동 수당 지급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선 영광군이 유일하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영광군 청년지원조례’

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들이 취·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으로 생애 한 번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18세에서 45세 청년 중에서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건은 최종학력이 졸업·수료·중퇴인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단 생계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유사 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

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희망 청년은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교육정책과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중만 영광군수는 “취업 활동 수당 지원을 통해 영광군 청년들이 취업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꾸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연기자

신안군, 농기계 임대 서비스 스마트 폰 앱 구축

신안군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휴대전화 앱을 통한 농기계 임대 예약 서비스를 2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기계를 임대 예약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농가 편의의 도모와 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새운 체계를 구축했다.

신안군 농기계 임대센터는 현재 1,350여 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읍·면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 및 경영비 절감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농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임대 사업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북부권과 중부권 7개 읍·면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 읍·면에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읍 시가지 주차공간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 앞장

함평읍 하나로마트·자광어린이집 인근 유류지에 220면 주차 면적 추가로 확보

함평군이 함평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에 함평읍 하나로마트, 자광어린이집 인근 유류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220면의 주차 면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올해에는 함평읍 전통시장 근처에 29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부터 인도 위 주차가 1분도 허용되지 않게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애매하게

나 지나치게 넓은 인도로 인해 경계를 침범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주차 문화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읍 뿐만 아니라 면 단위 소재지에도 유류지나 자투리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청 야외 주차장에 주차타워, 6월 완공한다

목포시는 시청 방문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기존 시청 야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차타워 건축물은 옥상면을 포함한 2층 3단의 철골구조로, 연면적 4950㎡에 262대를 주차할 수 있다. 총사업비 55억5000만원을 투입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목포시청 내 총 주차면은 364대에서 499대로 135대가 늘어난다. 주차 1면당 주차 폭도 2.3m에서 2.5m로 확장되면서 시청 민원인과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따라 15일부터 야외 주차장을 폐쇄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